

창건부터 중창까지 왕실의... 왕실을 위한 절

두 임금의 원찰 수국사(守國寺)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내리 사랑에서 나온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세상의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건 자연의 이치이다. 오래 사는 일이나 단명 하는 일 모두 개개인의 삶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은 자신들보다 오래 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일체존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그 인연이 다하면 소멸되듯이 사람 역시 쌓인 오운(五運)의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인과의 이치를 임금인들 바꿀 수 있겠는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왕조시대 관습대로 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니 그가 의경세자이다. 그런데 그가 세조 3년(1457) 9월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죽었다.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는 애절한 마음이지만 살려낼 능력이 없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세자가 일찍 죽자 세간 사람들 사이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저주를 맞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왕후의 묘를 파내 시신과 관을 쫓겨 강물에 던졌다고 한다. 조카의 목숨은 가깝게 여기고 자기 자식의 목숨을 안타깝게 여기는 세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다분히 후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조는 왕위찬탈의 인간적 번민을 불교에 의지했으며, 도덕적 약점은 생활을 검소하게 하여 민심을 얻고자 했다. 세자의 능을 조성할 때 국장도감의 관리들은 조금 사치스럽게 조성하려 하자 다음과 같은 어찰을 내렸다.

“이런 장례는 임금의 정례가 아닌데 모든 일이 정도에 지나친 것 같다. 그 무덤 안의 모든 일은 후하게 해도 되지만, 무덤 밖의 모든 일은 비록 나의 장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박하게 해야 한다. 한갓 백성만 번거롭게 할 뿐이지 죽은 자에게는 유익할 것이 없다.”

세조는 살아생전 자신의 능을 간소하게 조성하고 유언했다. 그런 까닭에 광릉의 모습은 여느 왕릉보다도 간소하다. 크기도 그러하지만 홍살문에서 정자까지 가는 길은 신도와 여도가 없다.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는 세조의 생각이었다.

의경세자를 고양군 동쪽 봉현(蜂峯)에 장사지내고 다음 해 내수사에 일러 능 동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찰을 세웠다. 세조는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완성할 것을 명했고, 판화엄대선사(判華嚴大禪師) 설준(雪皚)의 지도하에 열두 달이 걸려 완성하니 바로 정인사(正因寺)이다.

불행은 계속해서 온다고 했나? 세조가 죽은 다음

왕위에 오른 둘째 아들 예종은 재위 1년 3개월 만에 죽었다. 그 역시 의경세자 옆에 장사하니 능이 창릉이다. 두 아들을 앞세운 어머니 정희왕후 윤씨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렇다고 보위를 비워줄 수도 없었다. 종친들과 의논하여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산군을 보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성종이다.

아들이 왕이 되자 죽은 의경세자에 대한 예우가 달라졌다. 1469년부터 추송여론이 일어나 1470년 1월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자연히 능도 경릉으로 격상되었다. 지아비가 덕종으로 추존되자 인수대비는 정인사를 창건할 때 서둘러서 지었기 때문에 재물이 좋지 못하고 이음새가 정밀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래서 성종 2년(1471) 봄 자신이 살던 집에 새로운 원찰을 세우려 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수사에 주고 판내사부(判內寺府) 이효지에게 그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런 대비의 생각과 달리 두 아들의 어머니인 대왕대비 윤씨는 두 아들이 함께 있는 곳 가까이 원찰이 있었으면 생각했다.

“의경대왕과 예종대왕 두 능의 현실(玄室)이 아주 가까워 한 절의 종소리가 서로 들릴 만한 곳이다. 만약 인수대비가 개축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과 힘을 합쳐 재물을 모아 정인사를 중창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의경, 예종을 위해 전복(薦福)하는 정성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내수사에 특별히 하명하여 돈과 곡식을 더 내도록 했다. 그 후에도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알리어서 그 쓰임에 보태게 했다. 어머니의 뜻대로 확장하게 된 정인사 중창불사는 그 해 2월에 시작됐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 부역시키지 않고 노역에 대한 샅을 지불하지 않은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나섰다. 흥년이 들어 빈궁했던 탓에 샅을 낸 자가 구름같이 모여 일한 덕분에 10월에 모두 119칸의 정인사가 중창되었다. 부인과 어머니의 힘이 합쳐져 완성된 왕실의 원찰인 까닭에 사찰은 웅장하면서 아름다웠다. 단청이 휘황 현란하여 사찰로서 아름다움이 봉선사와 서로 찢쳐 들쭉날쭉이 됐다. 이런 정인사의 아름다움을 정인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원릉은 채색 구름 가에 엄숙하고, 사찰은 빼어난 데 앞에 높다랗다. 금벽 채색 빛나서 아찔 햇벌이 쬐고, 달랑거리는 풍경 소리는 바람이 멀리 전한다. 불등(佛燈)은 넓게 삼천계(三千界)를 미치고 국운(國運)은 응당 억만 년에 뻗자라. 정령(精靈)한 두타(頭陀)는 법좌(法座)에 올라 묘법을 말하고, 진전(眞詮)을 부연한다.”

두 임금의 원찰이 된 정인사는 자연히 왕실의 많



월초 스님은 진관사에 있는 수국사 부처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중종의 원을 세웠다.

의경세자 죽음에 부친 세조가 정인사 창건 세조는 왕위찬탈의 번민을 불교에 의지해 뒤이은 예종의 죽음으로 정인사 중창되고 왕실 지원 컸으나 화마로 폐사 위기 겪어

은 관심과 후원을 받았다. 인수대비는 “절은 있으나 곡식이 없으므로 승려가 의지할 곳이 없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미곡 100섬을 시주하여, 본곡(本穀)은 남겨 두고 이지만 이용하여서 식량(食糧)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 불교도 모두 여유 있게 구비하여 다른 사찰의 부러움을 샀다. 성종 4년(1473) 4월 초과일에 낙성 법회를 크게 하고 대승의 여러 경을 인출하자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신묘한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하며 서기가 하늘에 뻗었다. 원근에 있던 승려 수만 명이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감탄하면서 절했다.

아버지와 숙부의 원찰이다 보니 성종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즉위 초기 대소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의 잡역 및 노비 잡역을 감했다. 창릉과 경릉에 나아가 제를 지내고 사찰에 쌀과 풍을 하사했다. 사원전이 몰수될 때도 정인사는 두 임금의 원

찰인 이유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종은 호조에 명하여 정인사는 다른 절에 비할 바가 아니니, 봉선사의 예에 따라 쌀과 포를 주라고 명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왕실의 관심으로 불교배척은 면할 수 있었던 정인사도 화마만큼은 피해가지 못했다. 연산 10년(1504) 9월 정인사가 불에 타자 즉시 경기 감사 안윤덕과 형조 참판 박을 불러 바로 가서 국문하도록 했고, 두 임금의 영혼이 놀랐으므로 위안제를 지내도록 했다.

화재로 정인사는 한 때 폐사될 운명에 놓이기도 했다. 중종은 3년(1508) 경릉과 창릉의 원찰을 대차사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많아 다시 정인사를 복구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 옛 모습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4년(1549) 인근 유생들이 이곳에 드나들며 전해오는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자 왕실은 정인사가 왕실의 원찰임을 들어 봉선사와 봉은사와 같이 방을 걸어 유생들의 침입을 금했다. 그리고 소란을 크게 피운 황인정은 1차에 한하여 식년 과거 참여를 정지시키는 등 왕실의 원찰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이후에도 정인사는 사찰 위전(寺刹位田)이 그대로 지급될 정도로 왕실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그런 정인사가 지금의 수국사로 바뀐 것은 언제일까? 안타깝게도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종 이후 이에 관련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수국사로 바뀌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종 즉위년(1863) 12월 대왕대비가 산릉을 살펴본 의견을 들을 때 도감의 책임자 임백경이 수국사의 뒷산이 길한 곳 여덟 곳에 포함된다고 아뢰는 것을 보면 그 이전 수국사로 바뀐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 동안 돌보지 않아 사적이 많이 훼손되고 부처님도 인근 진관사로 이운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폐사에 가까웠을 것 같다.

그런 수국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중창된 것은 월초 스님의 의해서이다. 진관사에 있는 수국사 부처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중종의 원을 세웠다. 광무 4년(1900년) 세자로 있던 순종의 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고종은 그 고마움으로 현재의 위치인 갈현동 태화산 자락에 수국사를 중창했다.

이렇게 보면 정인사는 비록 수국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창건과 마지막 중창까지 모두 왕실과 인연이 깊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김경집/전주대 교수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20년 오랜음씨 갈상 탕화불상에숙원 갈상

8각좌대 청보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청보도불도배

있는 곳: 경북 경주시 서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손익리미: 010-5595-8533
 약하는 곳: 054) 773-853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시음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재료: 시지초, 홍난석화, 초유공,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제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성

전화주사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